

보육교사의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Child-caring Teachers and Parents on Teacher's Burn-out and Efficacy

박혜정

경남도립 거창대학

Hye-Jung Park(Isy0635@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 심리적 소진 그리고 교사 효능감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65명의 보육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교사의 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은 교사의 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인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원만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 |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 | 심리적 소진 | 교사 효능감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among communication between child-caring teachers and parents, teacher's burn-out and efficacy. An object of the study was totally 165 child-caring teachers, and the questionnaires survey result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by using questionnaires for survey constructed by Likert 5 point scale as a measuring scal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with SPSS 18.0 and AMOS 18.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with a significant level of 5%. The main results were withdrawn as follows. First, the communication between child-caring teachers and parents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caring teacher's burn-out. Second, the child-caring teacher's burn-out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child-caring teacher's efficacy. Third, the communication between child-caring teachers and parents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child-caring teacher's efficacy. Fourth, the child-caring teacher's burn-out has a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between the communication and the teacher's efficacy. These results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child-caring teachers and parents in order to decrease teacher's burn-out which is negative factor for teacher's efficacy.

■ **keyword** : | Communication between Child-caring Teachers and Parents | Burn-out | Teacher's Efficacy |

1. 서론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는 지식전달자가 아닌 양육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모 못지않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영유아의 입장에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정보다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가족보다 보육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도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3].

부모와 교사 모두는 영유아의 중요한 교육자이며 유아보육의 기초이고 출발점으로서, 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역할을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고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상호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어린이집은 각각 고유한 가치나 기준, 사회화라는 체계 등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양육할 때 물리적 환경, 상호 개인적 관계의 범위나 강도, 언어나 가치 등에 있어 차이를 가지므로 이로 인해 영유아는 두 환경 간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2].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심리적인 소진이 완화되고 교사의 효능감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소진이 가속화되고 교사의 효능감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4-6].

따라서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과 이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소진 및 교사 효능감과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보육교사의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심리적 소진 및 교사 효능감에 대한 개별적 연구 및 두 변수간의 영향관계에 그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이들 세 변수 모두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심리

적 소진의 증가는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뜨려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사의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심리적 소진 및 교사 효능감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보육교사의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리적 소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이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둘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이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넷째, 보육교사의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리적 소진의 영향을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상호 간에 공통적인 어떤 것을 공유하면서 주고받는 과정이다[7]. Pollman & Weinstein(1983)에 따르면, 유아 발달의 증진을 위해 가정과 교육기관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서로의 가치, 기준, 사회화하는 체계 등을 공유하여 두 환경 사이에서의 차이를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연계성 있는 경험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8]. 이러한 주장은 영유아 가정-교사가 함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영유아보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의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 된다[9]. 가정과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체계로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

리한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기에 영유아와 주변 환경, 환경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3].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가 갖는 경험들과 환경체제 간의 불연속성 및 불일치는 영유아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10]. 또한, Clarke-Stewart(2005)는 영유아의 발달이 가정과 보육기관에서 제공받는 자극의 종류가 유사할수록, 예를 들어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이 비슷할수록 더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11]. 이처럼 영유아 가정-교사가 함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심리적 소진

소진이란 에너지, 힘 등을 모두 소모해 버림으로써 고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은 직업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으로 스트레스와는 구분된다. 스트레스는 ‘과부화’와 관련되지만, 소진은 ‘고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2]. 즉, 소진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채워지지 않은 기대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로부터 야기되며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행동적 표출된 정서적, 육체적 및 태도적 고갈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6].

Maslach & Jackson(1981)은 심리적 소진을 정서적 소모,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결여 등 세 가지 주요한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각각의 하위요인 및 이에 대한 개념은 아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13].

표 1.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에 따른 개념

요인	개념
정서적 소모	정서적인 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손실되어 피곤함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싫증, 에너지의 상실, 피로를 느끼거나 느낌, 관심, 확신, 흥미, 기백이 상실되는 것
비인간화	일에 대한 이상이 감소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 이상주의의 상실, 신경과민이 되는 것
개인적 성취감 결여	유능감, 성취감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낮은 자기, 이질, 생산성의 감소, 무능력한 대응 등의 느낌으로 개념화

소진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영역이 바로 일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이 범주에 속하는 요인들은 주로 업무환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아동의 연령, 근무시간, 임금, 동료와의 관계, 외적 보상, 담당 영유아 수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 등이 소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유아와 관련 되지 않는 업무에 소비하는 시간, 보육의 질은 소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14].

Maslach(1982)는 어린이집의 근무조건, 다시 말하면 영유아를 돌보는 장시간의 육체적, 지적 노동, 동료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이고 잦은 접촉, 저 임금, 한정된 승진 기회와 적은 외적 보상이 심리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5].

3. 교사 효능감

교사 효능감의 정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요구되거나 의도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념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정의된다[16].

Ashton(1984)은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교사가 학생의 학습증진과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교수방법과 상호작용 기술 등을 어느 정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믿고 있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17]. Gibson & Dembo(1984)는 교사 효능감이란 가장 다루기 힘들고 동기 유발되지 않은 학생들조차도 교사가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 정의하고 있다[18].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된다. 결국, 보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인 영유아의 기질, 가정환경 특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에 대한 믿음이 곧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학생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혹은 효율적인 훈육에 대한 확신감 등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은진(200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효능감을 자아 존중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 네 가지 주요한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1], 각각의 하위요인 및 이에 대한 개념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따른 개념

요인	개념
자아존중감 (self-respect)	보육교사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견해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
자신감 (self-confidence)	교육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보육교사 개인의 판단
자기조절효능감 (self-regulatory efficacy)	보육교사 자신이 학교에서 행하는 활동들을 관찰하고, 자기를 판단하며 스스로 반응하는 것과 같은 자기조절 기제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과제난이도선호 (task-difficulty preference)	교육목표와 관련된 과제난이도에 대한 선호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유은영(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개인적인 성취감이 높아져 자신의 직업이 의미가 있으며 자신이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교사는 학생에 대한 성취기대와 학습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이 높아 학생이 진보하기를 기대하며, 학생들이 실패할 때는 학생자신의 잘못이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교사의 교수방법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9].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듯이,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학생들을 동기 유발시키는데 더 높은 능력을 보이고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학생에게 교수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상반된 태도와 교수행동을 보이며 권위적이고 엄격한 통제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보육시설 보육교사 165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	165	100.0
	남	0	0.0
연령	25세 이하	17	10.3
	26세 이상-30세 이하	27	16.4
	31세 이상-35세 이하	32	19.4
	36세 이상-40세 이하	34	20.6
	41세 이상	55	33.3
결혼 상태	미혼	61	37.0
	기혼	104	63.0
학력	전문대졸	74	44.8
	대학교졸	89	53.9
	대학원 이상	2	1.2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보육시설	71	43.0
	법인보육시설	21	12.7
	민간(보육시설)	73	44.2
교사경력	1년 미만	6	3.6
	1년 이상-3년 미만	19	11.5
	3년 이상-5년 미만	25	15.2
	5년 이상-7년 미만	42	25.5
	7년 이상	73	44.2
근무기관 학급수	1-3학급	20	12.1
	4-6학급	109	66.1
	7-9학급	26	15.8
	10학급 이상	10	6.1
자격종	보육교사2급	30	18.2
	보육교사1급	76	46.0
	유치원교사2급	6	3.6
	유치원교사1급	3	1.8
	보육교사2급+유치원교사2급	5	3.0
보육교사1급+유치원교사2급		38	23.0
	보육교사1급+유치원교사1급	7	4.2
	8시간	3	1.8
평균 근무 시간	9시간	79	47.9
	10시간	83	50.3
	5명 이하	17	10.3
학급 원아수	6-10명	83	50.3
	11-20명	59	35.8
	21-30명	6	3.6
합계		165	100.0

조사대상자 보육교사의 경우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층은 41세 이상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36세 이상-40세 이하 20.6%, 31세 이상-35세 이하 19.4%, 26세 이상-30세 이하 16.4%, 25세 이하 10.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63.0%로 미혼자가 37.0%였으며, 학력은 대학교졸업자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44.8%, 대학원 이상 1.2% 순으로 분포하였다. 근무기관 유형은 국공립보육시설 교사가 4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보육시설 44.2%, 법인보육시설 1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경력은 7년 이상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7년 미만 25.5%, 3년 이상-5년 미만 15.2%, 1년 이상-3년 미만 11.5%, 1년 미만 3.6% 순이었다. 근무기관 학급 수는 4-6학급이 6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9학급 15.8%, 1-3학급 12.1%, 10학급 이상 6.1%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보육교사1급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사1급+유치원교사2급 23.0%, 보육교사2급 18.2%, 보육교사1급+유치원교사1급 4.2%, 유치원교사2급 3.6%, 보육교사2급+유치원교사2급 3.0%, 유치원교사1급 1.8% 순이었다.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시간이 47.9%, 8시간 1.8%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 원아수는 6-10명이 50.3%로 가장 많았으며, 11-20명 35.8%, 5명 이하 10.3%, 21-30명 3.6% 순이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심리적 소진, 교사 효능감이며,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1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은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김민정(2010), Clarke-Stewart(2005)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체계로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기에 영유아와 주변 환경, 환경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의 경우 하위요인 없이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2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2.2 심리적 소진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심리적 소진은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윤은주(2007), 유영란(2012), Maslach & Jackson(1981)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채워지지 않은 기대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로부터 야기되며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행동적 표출된 정서적, 육체적 및 태도적 고갈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소모,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결여 등 총 3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심리적 소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Cronbach's α =.888이었으며, 모든 하위 요인에서 .7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4]에 심리적 소진 척도의 문항구성 구성과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표 4. 심리적 소진 척도의 문항구성 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서적 고갈	2, 3, 6, 7, 10, 11, 13, 16	8	.856
비인간화	4, 8, 12	3	.860
개인적 성취감 감소	1*, 5, 9*, 14*, 15*	5	.733
전체		16	.888

* 역채점 항목

2.3 교사 효능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교사 효능감은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최은진(2008), Gibson & Dembo(1984)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을 교사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학생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혹은 효율적인 훈육에 대한 확신감 등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자아 존중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 총 4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교사 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Cronbach's α .887이었으며, 모든 하위 요인에서 .6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5]에 교사 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구성과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표 5. 교사 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1~10(3*, 5*, 8*, 9*, 10*)	10	.731
자신감	11~18(12*, 13*, 14*, 15*, 16*, 17*, 18*)	8	.813
자기조절 효능감	19~24	6	.804
과제난이도 선호	25~29	5	.781
전체		29	.887

* 역채점 항목

3.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보육교사의 효능감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두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 변수를 투입하였다.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의 경우 하위 요인 없이 단일 요인화 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경우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 3개의 요인으로 하위 요인화 하였다. 한편, 보육교사의 효능감의 경우 자아 존중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 4개

의 요인으로 하위 요인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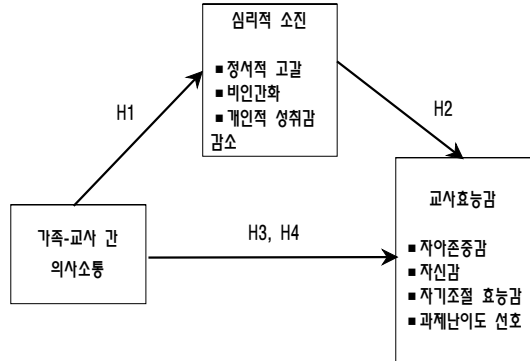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 가설 1.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 간 의사소통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 간 의사소통은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 간 의사소통이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진, 교사 효능감 간의 인과관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변수 간의 인과관계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χ^2 이 558.103, 자유도(df)는 173, TLI가 .918, CFI가 .934, RMSEA가 .072로 나타났다. TLI 값과 CFI 값은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RMSEA는 그 값이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면 적당한 적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합도는 이상의 이론과 부합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므로 타당한 모형임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적합도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최종 모형	558.103	173	.000	.918	.934	.07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진, 교사 효능감 간의 인과관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한 후 경로계수의 추정치와 임계율(Critical Ratio)을 제시하였다.

임계율은 회귀분석에서의 t값과 같으므로, 양측검증 임계치인 1.96보다 임계율의 절댓값이 크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진, 교사 효능감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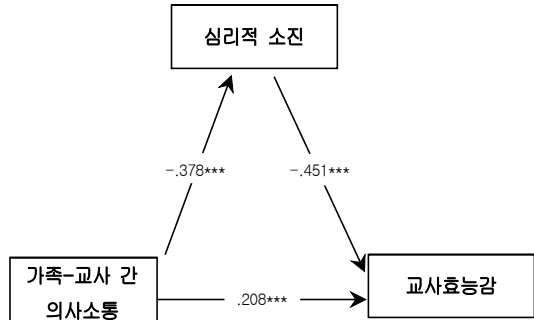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 = -.37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적 소진이 교사효능감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beta = -.64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소진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은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Estimate)	표준화 추정치 (β)	추정 오차	임계율 (C.R.)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심리적 소진	-.476	-.378	.091	-5.232***
심리적 소진 → 교사 효능감	-.451	-.643	.039	-11.464***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교사 효능감	.183	.208	.049	3.700***

*** $p < .001$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역시 유의한 정(+)의 영향($\beta = .20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교사 효능감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이와 같은 연구모형의 인과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모형의 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심리적소진	-.378		-.378
심리적 소진 → 교사효능감	-.643	.243	-.400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교사효능감	.208		.208

2. 매개효과 분석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와 효과 분해를 통해,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진, 교사효능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Sobel test (Z)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심리적 소진 → 교사효능감	4.766***

***p<.001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심리적 소진 → 교사 효능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243$)에 대한 Sobel test 결과, $Z=4.766(p<.001)$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소진의 매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소진, 교사 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심리적 소진의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변인, 교사 효능감 변인인 자아 존중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변인 등 하위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보육교사와 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심리적 소진 하위 변인인 정서적 고갈($\beta=-.242, p<.001$), 비인간화($\beta=-.292,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beta=-.490, p<.001$)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가 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수록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의 심리적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적 소진 하위 변인이 교사 효능감 하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고갈은 자아 존중감($\beta=-.365, p<.001$), 자신감($\beta=-.621, p<.001$), 자기조절 효능감($\beta=-.157, p<.05$), 과제난이도 선호($\beta=-.248, p<.001$)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표 10. 연구모형 하위 변인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Estimate)	표준화 추정치 (β)	추정 오차	임계율 (C.R.)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정서적 고갈	-.359	-.242	.113	-3.188***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비인간화	-.651	-.292	.167	-3.905***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개인적 성취감 감소	-.558	-.490	.077	-7.205***
정서적 고갈 → 자아존중감	-.236	-.365	.044	-5.407***
정서적 고갈 → 자신감	-.484	-.621	.046	-10.504***
정서적 고갈 → 자기조절효능감	-.109	-.157	.043	-2.540*
정서적 고갈 → 과제난이도 선호	-.217	-.248	.051	-4.244***
비인간화 → 자아존중감	-.128	-.297	.030	-4.332***
비인간화 → 자신감	-.099	-.190	.031	-3.165**
비인간화 → 자기조절효능감	.031	.067	.029	1.068
비인간화 → 과제난이도 선호	-.178	-.306	-.035	-5.151***
개인적 성취감 감소 → 자아존중감	-.166	-.197	.064	-2.615**
개인적 성취감 감소 → 자신감	-.046	-.045	.067	-.680
개인적 성취감 감소 → 자기조절효능감	-.150	-.166	.062	-2.402*
개인적 성취감 감소 → 과제난이도 선호	-.396	-.346	.075	-5.316***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자아존중감	-.027	-.029	.077	-.359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자신감	.027	.024	.081	.338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자기조절효능감	.513	.499	.075	6.834***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과제난이도 선호	.452	.347	.090	5.045***

*p<.05, **p<.01, ***p<.001

으로 나타나, 보육교사들이 정서적 고갈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비인간화는 자아 존중감($\beta=-.297, p<.001$), 자신감($\beta=-.190, p<.01$), 과제난이도 선호($\beta=-.306,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비인간화는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비인간화는 자기조절효능감에는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자아 존중감($\beta=-.197, p<.001$), 자기조절 효능감($\beta=-.166, p<.001$), 과제난이도 선호($\beta=-.396, p<.001$)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자신감에는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들의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교사 효능감 하위 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자기조절 효능감($\beta=.499, p<.001$), 과제난이도 선호($\beta=.374, p<.001$)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진 하위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의한 경로에 대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정서적 고갈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정서적 고갈 → 자아 존중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088, p<.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정서적 고갈 → 자신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150, p<.01$),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정서적 고갈 → 자기조절 효능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037, p<.05$),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정서적 고갈 → 과제 난이도 선호 경로의 간접효과($\beta=.060, p<.05$)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심리적 소진 하위 변인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 효과 (β)	총 효과 (β)	Sobel test (Z)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정서적 고갈 → 자아 존중감	.088	.088	2.733**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정서적 고갈 → 자신감	.150	.150	3.041**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정서적 고갈 → 자기조절 효능감	.037	.112	1.981*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정서적 고갈 → 과제 난이도 선호	.060	.150	2.546*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비인간화 → 자아 존중감	.087	.087	2.877**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비인간화 → 자신감	.055	.055	2.470*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비인간화 → 과제 난이도 선호	.089	.179	3.093**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개인적 성취감 감소 → 자아 존중감	.097	.097	2.442*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개인적 성취감 감소 → 자기조절 효능감	.081	.156	2.295*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개인적 성취감 감소 → 과제 난이도 선호	.170	.260	4.267***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비인간화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비인간화 → 자아존중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087, p<.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비인간화 → 자신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055, p<.05$),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비인간화 → 과제난이도 선호 경로의 간접효과($\beta=.089, p<.01$)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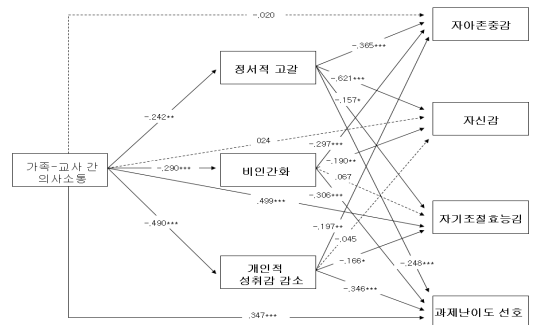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하위 변인 간의 경로계수

마지막으로 개인적 성취감 감소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개인적 성취감 감소 → 자아 존중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097, p<.05$)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개인적 성취감 감소 → 자기조절 효능감 경로의 간접효과($\beta=.081, p<.05$),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 개인적 성취감 감소 → 과제난이도 선호 경로의 간접효과($\beta=.170, p<.001$)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서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는 매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과제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인간화의 매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의 매개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 보육교사와 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자아 존중감 간에 개인적 성취감 감소 변인 역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 심리적 소진 및 교사 효능감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및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은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 요인인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비인간화 모두 영유아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이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적 소진을 낮춤으로써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을 통한 보육교사의 효능감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영애·부성숙(2014)의 연구[20]에서 성공적인 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가정-교사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사 역할을 수행, 즉 좋은 보육교육의 질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여러 특성들 가운데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좋은 보육교육의 질 제공을 위해 가정-교사 간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김유정·박지혜·안

선희(2012)의 연구[21]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성과와의 상관성을 연구한 이주연·지명원(2012)의 연구[22] 또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유아의 가족들과 원활한 관계형성 및 효능감 향상으로 인해 성공적인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효능감은 피 교육 대상인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소진 완화와 이를 통한 가족-보육교사 간 의사소통과 보육교사의 효능감의 인과관계를 밝혔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보육시설에 국한된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전국적인 결과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165명으로서 매우 제한된 조사대상 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보육교사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추후 좀 더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 수를 더 늘림으로써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최은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 이영애, *어린이집 교사의 의사소통능력과 가정-교사 간 의사소통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 김민정, *어머니-유아교사 간 의사소통 만족도 연*

- 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 심순애,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 이지영,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6] 유영란,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7] 이화나, *교사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설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8] J. Pollman and H. Weinste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and Intellectu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Communicatives Behavior with Caregiv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38576, 1983.
- [9] 위수정, *유치원에서의 어머니-교사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0] S. Konots, "Congruence of parent and early childhood staff perceptions of parenting," *Parenting Studies*, Vol.1, pp.5-10, 1984.
- [11] K. A. Clake-Stewart, *Predicting child development from child care forms and features: The Chicage study*. In D. Phillil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87.
- [12] 윤은주, *상담자의 소진에 대한 체험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3] C. Maslach and S. E. Jackson,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 [14] R. Fuqua and K. Couture, "Burnout and locus of control in child Day care Staff," *Child Care Quarterly*, Vol.15, No.2, pp.34-45, 1986.
- [15] C. Maslach, *Burnout: The cost of caring*, New York: Prentice Hall, 1982.
- [16]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1997.
- [17] P. L. Ashton,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Vol.15, pp.69-78, 1984.
- [18] S. Gibson and M. H. Dembo,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6, No.4, pp.569-582, 1984.
- [19] 유은영, "유치원교사의 효능감과 의사결정 참여 영역에 관한 연구," *경기교육논문*, 제12권, 제1호, pp.1-12, 2004.
- [20] 이영애, 부성숙, "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과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466-476, 2014.
- [21]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제33권, 제5호, pp.71-89, 2012.
- [22] 이주연, 지명원,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자아탄력성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191-200, 2012.

저 자 소 개

박혜정(Hye-Jung Park)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유아교육학사)
- 2008년 2월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교육학 석사)
- 200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심리(교육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남도립 거창대학 아동보육복지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 유아교육, 교육심리